

문화·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

▶ 최경식 시장의 포부



더 융성하는 남원 큰 미래 완성할 것

“지난 3년 성과, 시민·공직자가 함께 해준 덕
남은 1년, 더 머물고 싶은 남원 만드는데 주력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3년간 모두가 함께 해주신 덕분에 민선 8기 남원시정 변화를 눈부신 성과로 이룰 수 있었다”며, “지난 3년 동안 한 마음 한뜻으로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 준 시민들과 그 여정에 함께 해준 1,5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전반기에 남원발전의 초석을 탄탄히 세웠던 만큼 그 토대 위에 후반기부터는 작지만 강한 도시, 성장잠재력 높은 도시 남

원으로 이끄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남은 1년간 시민과 더욱 협치하면서 국립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등 ‘더 머물고, 살고 싶고, 살고 싶은 문화와 미래산업 도시 남원’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출산에서부터 보육, 교육, 맞춤형 주거정책까지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해 떠나지 않는 남원, 살고 싶은 강소도시, 더 융성하는 남원의 큰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이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융성하는 남원, 새 희망 남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시간이 흘러 어느덧 7월 1일자로 취임 3주년을 맞이했다.

최 시장은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시정 비전으로 내세우고 지난 3년간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것은 물론, 1천여 공직자와 함께 각 분야 현안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원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았다.

결과 공약 이행률 80% 돌파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은 최 시장의 민선 8기 3년을 성과로 짚어본다.



▲남원 대도약을 위한 국립기관 유치

남원시의 민선 8기 3주년 최대성과는 교육부 2023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8만 시민과 30만 항우의 오랜 열원이자 시정 제1과제인 폐교 서남대 문제를 해결한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설립 본격 추진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확정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선정 △남원 교도소 본격 추진 등 ‘국립기관 유치’로 꼽을 수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총 604억원의 예산이 투입, 남원 글로벌 캠퍼스가 조성되며,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벌커머스와(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세 학과가 개설, 2026년부터는 교육과정이 본격 운영된다.

국립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남원 조성 사업도 괄목할 만한 성과인 제20대 대선 전북 대표 지역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사업이 본격 제도에 오르며, 오는 2028년 조성이 완료되면 전국 유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및 다양한 체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남원시는 연간 약 10만명이 시설을 이용해 수백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로 선정 제시된 운봉 부지는 무엇보다 국유지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개발 속도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와 국유재산 활용 방향에 부합한데다 2개의 고속도로와 KTX 전라선 등이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로 접근성이 매우 좋아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역대 최다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는 지난 3년간 역대 최다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성장동력을 한껏 드높이기도 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최 시장이 재정자립도 8%대인 남원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사활을 건 것은 대규모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이었다.

이에 실제로 최 시장은 지난 3년간 부처 문턱이 닳도록 광복 행보를 펼치는 것은 물론, 전방위적인 예산 행보를 통해 현재까지 △글로벌 30 전북대남원글로벌 캠퍼스 설립(604억원) △요청 통합하천(489억원) △주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306억원) △전북반할주택(320억원) △지역활력타운(220억원) △농촌협약(264억원) △곤충산업거점단지(250억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40억원) 등 총 260건 공모사업에 6,50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래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각종 외부평가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의 자력은 사실상 외부 평가로 더 입증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한국매니페스토 3년 연속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SA)달성 △행정안전부 8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 기관 달성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대상 대통령 표창 인센티브 15억원 확보 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결의



전북대 글로벌캠퍼스 설립 추진



총 143건에 선정, 42.4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며, 민선 8기 3주년 남원시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국내 및 국외의 대외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시 위상과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 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남원춘향제 △08회 빛 △09회 컬러 △05회 소리 등 주제를 달리하면서 정체성을 강화한 것은 물론, 04회부터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면서 K-컬처 중심으로 우뚝 서며 화제성뿐만 아니라 관광객 145만명으로 시 위상을 드높이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민선 8기 들어 국내 최초로 진행했던 ‘드론레이싱’ 대회는 이제, 국산 기체 DFL(국토부 상용화 사업으로 개발한 국산 기체 활용 드론 레이싱 대회)활용 국토부 협업 국내 최초 국제드론레이싱 월드컵 개최(2027)로 이어져 드론레이싱 중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등 남원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여기에 민선 8기 출범 이후 남원만의 매력과 미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브랜드(BI)를 개발한 부분도 눈에 띄는 성과다.

▲체류형 문화·관광산업

남원 환파우 아트밸리 추진 등 체류형 문화예술 생태관광거점도시 기반 마련 등 문화관광거점을 이룩한 점도 의미있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9월 17일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 남원의 역사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올 5월에는 가야고분군 홍보관도 개관, 남원 세계유산이 지역의 경제·관광산업을 견인하는 원천으로 활용되고, 옷칠목공예, 도자전시장, 아트리프트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말에 개관한 스마트 투나, 달빛정원, 피오리움을 비롯, 명품 한옥 호텔 명지각 1.2관 조성, 청사초롱 빛의 거리 조성, 경외사가 활용으로 음식문화 특화 거리 운영 등 체류형 문화·관광산업 거점 도약의 기틀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드론·항공산업 육성’,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실제로 드론 항공산업에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3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선정으로 드론 배송 등 실증사업 추진, 전국 최대규모의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170억원)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드론·UAM 모빌리티 사세를 선도해가고 있

가야고분군 홍보관 개관



최대 성과는 글로벌대학 선정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도

역대 최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자체의 성장동력 드높여

외부 평가로 지역의 자력 입증

남원춘향제 ‘춘향제향’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배움관



며 특히 2027년에는 남원 DFL월드컵 개최 등을 통해 드론 레저스포츠 중심도시로 더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내 최초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250억원을 확보, 곤충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 등 농생명 바이오 6차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또한 바이오 테스트링 센터(190억원)와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190억원) 건립 중으로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조성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 3년간 미래 농생명 수도로서 입지를 탄탄히 다지며, 스마트 생산, 가공, 유통, R&D 집적 전후방산업을 집중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60.4ha 규모의 예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지난 6월 5일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최종 지정 고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200

억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40억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182억원)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938억원 중 838억원을 확보, 이러한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500명의 청년 일자리라는 물론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열대 작물인 백향과를 원프로로 육성, 미식관광 상품으로 육성한 부분 또한 재배기술 정립 시제품 개발 (24종) 및 지적재산권(특허 등 상표권 출원 18점)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촉촉한 출산·보육·교육·복지시스템 구축

남원시 민선 8기 3주년 성과 중 괄목할 만한 성과는 무엇보다 출산·보육·교육·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된 점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남원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산, 보육, 교육 분야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 △원정출산을 막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터 달빛어린아병원-심아약국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 △인재학당 건립 △교육특구 선정 △어울림도서관 개관 및 SW미래채움센터 개관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변화하는 새 희망 남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돌봄 행정은 민선 8기 초반부터 시작했던 읍면동장 1일 1가구 소동행정, 경로당 IPTV 구축 (494개소) 이외에도 남원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양육과 돌봄 공공성 강화, 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촉촉한 복지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남원 조성을 통해 더 강화됐다.

▲지방소멸 위기 적극 대응

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지자체의 도시 경쟁력을 빌드업,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거 확보한 것 역시 남다른 성과로,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되는 A등급 획득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상 최대 규모인 112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북 시군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총 160억원의 재정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청년ն예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운영 △남원 인재학당 건립·운영 등 총 6개 기금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렇게 남원시는 민선 8기 지난 3년간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분야별 다양한 시정추진을 통해 남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